

히타치, '2015 동아시아 30'에 선정



히타치는 '2015 동아시아 30(East Asia 30)'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동아시아 30'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정석구)이 아시아 사회책임경영 전문가위원회와 함께 한·중·일 동아시아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 시상하는 행사다.

약 3 개월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 3 개 부문에서 20 개의 세부 항목을 구성해 비교, 평가 후 각국의 전문가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거쳐 한중일 각국 우수기업 10 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일본 기업 중 사회영역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히타치는 임직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책임경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까지 동아시아 30 우수기업으로 네번째 선정된 히타치는 '우수한 기술·제품의 개발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다' 는 기업 정신 아래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전세계 회사 법인들의 사회책임경영 교육을 비롯해 체계적인 공급망(협력업체) 사회책임경영 리스크 관리로 사회영역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30 기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 월 29 일 개최된 수상식에는 히타치를 대표해서 한국히타치의 타케우치 사장이 참석했다.

- 이상 -

■ 보도관련 문의처

(주) 한국히타치 홍보·G연계그룹(담당:박성남 과장)

전화 : 02-6050-8510